삼바에피스, 유럽서 好실적… 바이오시밀러 매출 4억弗 돌파

전년동기比 매출 4.4% 상승
유럽 내 환자 24만 누적 처방
"안과 등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

〈베네팔리·임랄디·플릭사비〉

삼성바이오에피스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3종, 베네팔리,임랄디,플릭사비(왼쪽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3종(베네팔리, 임랄디, 플릭사비) 상반기 유럽 매출이 지난 하반기에 이어 4억달러를 돌파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유럽 지역 마케팅 파트너사 바이오젠은 22일(미국 현지시간) 상반기 유럽 시장 내 제품 매출은 4억750만달러(약 4600억원)로 전년 동기대비 4.4%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회사측은 경쟁 심화에도 유럽 내 환자 24만명에게 누적 처방되며 판매량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해 하반기(4억530만달러)에 이어 올해 상반기까지 연달아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3종의 유럽 제품 매출을 4억달러 이상 달성하며 시장 내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유럽 에타너셉트 성분 의약품 시장 점유율 1위 제품은 '베네팔리'는 올해 상반기 2억4320만달러(약 2750억원)의 매출을 거두며 오리지널 의약품 '엔브렐'과의 판매 격차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전 세계 매출 1위 의약품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 '임랄디'는 1억1350만달러(약 1280억원),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 '플릭사비'는 5080만달러(약 57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또 바이오젠에 따르면 유럽 내에서 동 제품 3종을 처방받은 누적 환자 수는 24만명에 달하는 등 삼성바이오에피스는 고품질 바이오의약품을 통한 환자들의 치료 기회 확대와 더불어 글로벌 시장 내 '데이터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관계자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판매량 확대로 유럽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업계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다"며 "향후 안과질환 치료제 등 다양한 분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교육부, 6.4兆 추경 확정… 직업계고·전문대 취업지원

방역강화·등교확대 교부금 우선 투자
고졸 취업희망자 역량 강화 60억 지원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메트로신문DB

교육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 6조3954억원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됐다.

2차 추경 중 내국세 세입 확대에 따라 증액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6조 3658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각 시·도교육청으로 배분되는 교부금은 대부분 코로나19 방역 대응과 교육 여건 개선에 집중 사용될 전망이다.

코로나19에 따라 실험·실습 기회가 감소하는 등 취업 영향을 더 받은 것으로 파악되는 전문대 학생과 실업계고 졸업생, 고졸 후 취업 예정 학생들 지원 등에 296억원이 편성돼 집중 투입된다.

세부 내용을 보면, 전문대학생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한시 지원금 215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전문대 졸업자나 졸업예정자 3만명을 대상으로 국가 공인 자격 취득이나 어학검정 수수료, 각종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이 1인당 70만원 이내에서 지원될 예정이다.

고졸 취업희망자 취업역량강화 지원에 60억원이 신규 지원된다.

올해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직업계고 학생 등 2만4000명의 자격증 취득에 소요되는 교육비와 응시료가 1인당 50만원 이내로 지원된다.

또 직업계고의 실습결손을 만회하고 보조강사를 활용한 실습 교육 집중 지원을 위해 실습지원 멘토링에 21억원을 쓴다.

전체 직업계고 580여개교에 학교당 1명의 졸업생을 실습지원 보조강사로 채용해 강사 본인이 실습수업에서 경험한 시행 착오나 유의사항, 노하우 등을 후배들에게 멘토링하게 된다.

교육부는 올해 내국세 세입 확대에 따라 증액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정서·사회성 등 다양한 결손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 회복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2학기 등교확대를 위한 학교 방역 강화, 교육환경 개선 등에 우선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추경 정부안에 편성됐던 2021 대학방역인력 한시지원 사업(54억6000만원)은 국회와 협의를 통해 감액하고, 대학방역인력에 대해 행정안전부 희망근로 지원사업을 통해 기존 교당 5명에서 5~10명까지로 확대 지원키로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조선호텔앤리조트 '격물공부 센터필드점' 오픈

소규모 플라워 클래스 프로그램 운영

웨스틴 조선 서울의 플라워샵 격물공부가 조선 팰리스가 있는 강남 테헤란로 센터필드 타워에 매장을 오픈했다. /조선호텔앤리조트

조선호텔앤리조트의 대표 프리미엄 플라워&라이프 스타일샵 격물공부가 강남 테헤란로의 중심 센터필드 타워 내 '격물공부 센터필드점'을 지난 23일 오픈했다.

격물공부(格物工夫)는 사물의 이치를 깨우쳐 익힌다는 동양사상을 담고 있으며 가치와 품격을 더해주는 꽃과 화병, 디자인 소품을 비롯한 귀한 제품들을 선별해 부케, 꽃다발, 센터피스 등 고객 맞춤형 고퀄리티의 플라워 스타일링을 제안해오고 있다.

웨스틴 조선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선보이는 매장인 격물공부 센터필드점은 조선호텔앤리조트가 운영하는 최상급 호텔 브랜드인 조선 팰리스 서울 강남, 럭셔리 컬렉션 호텔과 동일한 센터필드 웨스트동에 위치하며 호텔 투숙객을 비롯해 F&B, 스파, 클리닉 등 센터필드 내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플라워 스타일링의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외부 로드샵 매장으로 첫선을 보이는 격물공부 센터필드점은 강남, 역삼 근처 주변 직장인들을 타겟으로 소규모 플라워 클래스를 프로그램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최대 4인 대상의 클래스로 꽃다발, 테이블 스타일링, 가드닝 등 원하는 테마의 작품을 실제 매장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을 활용해 완성할 수 있고 월 단위(주 1회/ 총 4회)로 진행되며 가격은 월 기준 48만원(재료비 포함)이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

교육부,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

시도교육청 합동 특별조사 추진
가해 지도자 경찰 수사 등 징계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7월26일부터 8월27일까지 5주간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 6만여 명을 대상으로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폭력피해 전수조사는 지난해 체육계 폭력 사안 발생에 따라 처음 실시됐고, 작년 12월 발표한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에 따라 정례화돼 이번이 두 번째다.

이와 별도로 학생선수와 학부모 등은 교육부 폭력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상시로 학교운동부 관련 폭력피해를 신고할 수 있다.

이번 폭력피해 전수조사 대상에는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선수뿐 아니라, 선수 등록을 하고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학생선수까지 포함된다.

전수조사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따라 학생들이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실시되며, 작년 여름방학 이후부터 현재 조사시점까지 1년간의 폭력 피해 사례가 대상이다.

또 외부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운동부 관계자를 조사과정에서 배제하며, 적극적인 조사 참여와 응답을 유도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조사의 배경과 필요성 등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포격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졌거나, 조직적 은폐·축소가 의심되는 사안일 경우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합동 특별조사도 함께 추진된다.

전수조사 실태파악 후 가해자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엄정한 후속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특히 가해 지도자의 경우에는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경찰 수사와 신분상 징계, 체육지도자 자격에 대한 징계가 이뤄진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양대 법학연구소

한·독·일 국제학술대회 개최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가 내달 3~4일 '코로나19 대유행의 도전과 그에 따른 한국·일본·독일에서의 법적대응'을 주제로 제9회 한·독·일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법학교류협력을 위해 지난 2005년 처음 개최된 한·독·일 학술대회는 한국·독일·일본이 돌아가며 격년으로 개최해왔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양대 서울캠퍼스에서 열리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ZOOM)으로도 병행해 진행한다. 학술대회는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고,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30일까지 한양대 법학연구소로 이메일을 보내면 된다.

/이현진 기자 lhj@

호서대

청소년리더 글로벌 교류 지원

호서대학교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21 국제청소년리더 교류지원사업'에 선정돼 청소년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3년 연속운영한다.

국제청소년리더 교류지원사업은 다국적 청소년 간 교류활동 지원을 확대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에 체류 중인 유학생의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국가 간 우호도 증진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호서대는 '2019 국제청소년리더 교류지원사업' 시상식에서 여성가족부장관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고, 올해는 전 지구적 의제인 SDGs(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주제로 한 교류활동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와 대응을 위한 실천방안 확산을 목표로 국내 거주 다국적 청소년들과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이현진 기자

'2021 세종 하계 스타트업 캠프'에서 학생들이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세종대

세종대 창업지원단

하계 Start-up Camp 진행

세종대학교 창업지원단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창업자들의 창업역량 향상을 도모하고 비즈니스 모델 수립을 돕기 위해 '2021 세종 하계 스타트업 캠프'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온라인 웹엑스를 통해 무박으로 진행됐으며 총 16팀, 총 53명이 참여했다.

창업지원단은 캠프를 통해 예비 창업자들이 참신한 창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했다. 창업 특강과 2단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팀별 전담 멘토를 지정했다.

/이현진 기자